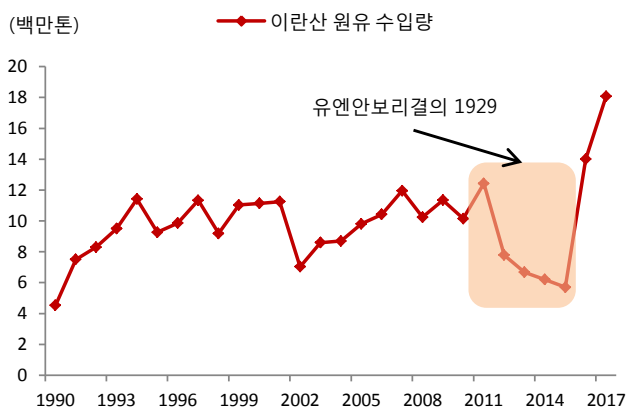


트럼프의 힘, 결국 한국 원유수입까지

- ▶ 이란 제재 11월부터 본격화 선언하면서 한국은 이란산 수입물량 공식적으로 감축 검토 중. 가스와 유사한 경우로서 이란 줄이고 미국 원유수입 증대 예상됨. 트럼프-사우디의 영향력 당분간 지속 주목 필요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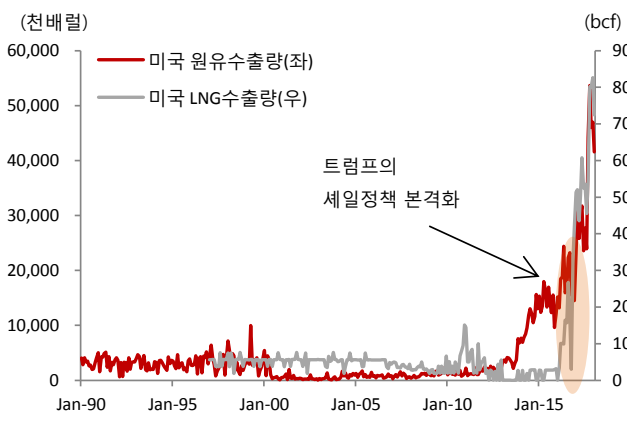
과거에도 미국 제재 여파로 이란산 원유수입 조정했던 한국



자료 : KOTIS, SK증권

- 지난 주 후반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기사가, “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사항에 맞춰 이란산 원유수입을 줄인다”라는 것이었습니다. 일각에서는 20% 감축으로 기준도 정해지고 있다고 하네요
-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기도 한데요. 미국이 ‘중간선거를 앞둔’ 11월까지 이란 원유수입금지에 따르지 않으면 ‘세컨더리’ 제재에 들어가겠다고 경고까지 나왔었거든요
- 한국은 과거에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. KOTIS 데이터에 따르면 과거 미국의 이란 제재(유엔안보리결의 1929) 당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란산 수입물량을 1,243만톤에서 570만톤까지 줄였었는데, 이후 제재가 풀리고 작년에는 1,800만톤까지 늘어났습니다
- 그 예시가 이번에도 좋은 참고사항이 될 듯 싶습니다

미국의 원유 및 가스 수출 물량은 트럼프 부임 이후 급증



자료 : EIA, SK증권

- 미국은 이를 통해 또 한 번 큰 이득을 얻어냈습니다. 자국 에너지 수출물량을 한국으로 대폭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
- 이미 지난 해 사우디와 카타르 제재(LNG 최대 수출국)를 합작해 한국, 중국, 일본으로의 가스 수출 물량을 대폭 늘렸었는데, 이번에 이란을 잡는다면 원유도 대폭 늘릴 수 있으니까요
- 트럼프의 세일 증산/수출 정책이 본격화된 뒤 그들의 원유/가스 수출은 과거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
- 거기에 더해 유가까지 오르고 있으니, 트럼프의 지지율이 미국 내에서 부임 이후 최대까지 오른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
- 결국 미국과 국제정세 모두에서 트럼프, 그리고 그의 단짝인 사우디의 힘이 계속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. 당분간은 이들의 행보를 주목하는 것이 석유시장을 예측하는 데 계속 중요할 겁니다

•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 •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•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 • 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 •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 이상 → 매수 / -15% ~ 15% → 중립 / -15% 미만 → 매도

